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자전거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S리그 참가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

A Subcultural Analysis of a Bicycle Masters' Cycle Tour
S-League Participating Club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스포츠관리전공
권진욱

자전거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S리그 참가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

지도교수 김 종 호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7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스포츠관리전공
권진욱

권진욱의 체육학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성 훈 (印)

심사위원 우 민 정 (印)

심사위원 김 종 호 (印)

울 산 대 학 교 산 업 대 학 원

2023년 7월

국 문 초 록

자전거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S리그 참가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스포츠관리전공
권진욱

본 연구는 자전거 MCT S리그 동호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하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동호회 내부적 현상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고 동호회 활동과 그들의 MCT S리그에 대한 생각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MCT S리그에서 활동 하고 있는 연구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동호인 7명을 선정하였다. 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동호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호회 내부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 관찰, 보조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통해 텍스트자료로 변환하였으며, 의미의 범주화와 개념화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자전거 MCT S리그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CT S리그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팀의 속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동호회의 속도에 따른 구별 짓기, 폐쇄성, 차별적 멤버 선발로 나타났다.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라 그룹이 구분되어 주행하는 “구별짓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 단절이 생기고, 그룹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동호회 내에서 MCT S리그 그룹과 일반 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고 있다.

동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실력과 우수한 인성을 갖춘 선발된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주행을 위한 조치로 외부 동호회와의 주행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호회 내부는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S리그 참가 멤버의 선발은 동호회 내에서 실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선의에 경쟁이 진행된다. 경쟁의 과정에서 선발된 참가자

들은 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얻고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MCT S리그 동호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남성 중심의 속도문화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남성 중심 문화, 속도에 따른 서열문화, 안전중심의 엄격한 훈련문화로 나타났다. MCT S리그 동호회는 특징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 회원들은 MCT S리그의 속도에 부담을 느끼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여성 회원들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남성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른 서열이 형성되는 문화가 발생한다. 상위 실력을 가진 사람은 동호회의 운영에 결정권과 발언권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가 서열과 자존심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속도에 따라 형성된 서열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동호회 내에서의 갈등 상황과 개인의 운동 중독 성향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는 안전을 중시하는 훈련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인 동호회 운영과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이로 인해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되어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MCT S리그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으로 사회적 관계의 확장 및 갈등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위광을 위한 암묵적 합의, 승리를 향한 역할 갈등, 갈등해소와 자아실현의 장으로 나타났다. MCT S리그에서는 경쟁력과 우승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들이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적 향상을 위해 다른 동호회보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집단 간 경쟁과 특례적인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으로 인해 기존 회원의 이탈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팀플레이를 통해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동호회와 회원 개인 간에 추구하는 방향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팀과 팀원의 영광을 개인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욕심보다 조직의 승리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호회 활동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자아실현의 욕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Maslow의 욕구 이론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승리를 위해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상대와의 유대를 통해 인간적인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된다.

주제어 : 자전거동호회, 하위문화, 스포츠 하위문화, MCT S리그,

마스터즈사이클투어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자전거 동호회	6
2.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6
3. 스포츠 하위문화	8
III. 연구 방법	12
1. 연구 설계	12
2. 연구 대상	12
3. 연구 절차	13
4. 자료 수집	13
5. 자료 분석	14
6.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15
7. 연구의 윤리성	15
IV. 자전거 MCT투어 S리그 동호회 문화의 특성	16
1.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 속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	16
2. 동호회의 문화적 특성: 남성 중심의 속도문화	22
3.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갈등	29
V. 논의	36

VI. 결론 및 제언	41
1. 결론	41
2. 제언	44
참 고 문 헌	45
ABSTARACT	50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	13
------------------	----

그림 목 차

[그림-1] 자료 분석 과정	14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래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고밀도 녹지 확보, 도시 재생과 더불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이 각광 받고 있다. 또한 고밀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에 효과적인 대처와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12).

한국교통연구원(2021)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40만 명이며, 그 중 330만 명은 매일 자전거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는 1979년 도로구조령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2008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동차 중심도시의 문제를 극복 및 완화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전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활성화를 거치면서 자전거 관련 시설투자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되던 자전거는 현재 자연과 함께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자전거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1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21)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종목 중 자전거는 전체에서 일곱 번째(6.2%)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나타났으며,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동호회 조사에서 여섯 번째(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 생활체육회 및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에 등록된 클럽현황에서 자전거 동호인 클럽 수는 1,744개이며, 회원 수는 66,756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자전거도로가 2013년 3,969개의 노선에서 2015년 11,169개의 노선으로 폭발적인 증가와 2016년 21,179km의 자전거도로 총연장길이가 2021년 25,249km로(행정안전부, 2020)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가 1,300만을 돌파한 것으로 보아 현재도 계속 자전거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인의 경기 참여 또한 현대 사회의 국민들에 생활 체육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많이 개최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동호인 자전거 대회로는 대한자전거연맹(KCF)에서 주최/주관 하고 있는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가 있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KCF에 동호인선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위리그인 S리그와 하위리그인 D리그로 개최되고 있으며, 카테고리 별 순위를 제공하여 참가 동호인 상호 간의 동기부여, 자긍심 고취 등으로 국민 레저 및 건강 증진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의 개인 도로 경기는 마라톤 종목에 해당하며, 열량 소모가 크고 강한 심폐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 경기는 개인 도로 경기로서, 대한자전거연맹에서 개최되는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에서는 주행 거리가 140~160km로 정해져 있다. 이 종목은 올림픽에서는 남자 엘리트는 220~250km, 여자 엘리트는 100~140km로 정해져 있다. 출전 선수는 출발 서명 장소에서 출발 서명을 한 후 출발선에 모여 일제히 출발하며, 결승선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에 참가하려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들은 동호회 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동호인 스포츠는 스포츠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활 체육의 일환으로 비슷한 관심사와 취미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활동이다. 동호인들의 스포츠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 나타났다.

하위문화는 전체 문화의 가치와 규범과는 다르지만, 완전히 반대되거나 전체 사회에서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며, 하위문화는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문화적 환경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Crosset & Beal(1997)의 주장이다. David & Julia(1991)의 정의에 따르면, 하위문화는 한 특정 문화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믿음, 가치, 규범의 어떤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문화와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는 하위문화 또는 부분문화이다. Loy, Mcpherson, & Kanyon(1978)은 스포츠 하위문화를 직업 하위문화, 동호인 하위문화, 그리고 일탈 하위문화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자전거 스포츠 동호인 하위문화에 속하며,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마라톤 등의 여러 생활체육 종목들도 동호인 하위문화의 부류에 속한다. 스포츠에서 동호인 하위문화는 개인의 중심적인 생활관습을 추구하며,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제공될 때 만들어 진다. 그 특징으로는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하위집단은 전체 사회에서 지배적인 다른 집단들보다는 다소 다른 믿음, 가치, 사고, 행동 방식을 나타낸다(Crosset & Beal, 1997).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스포츠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국외에서는 대항적인 특성, 역할갈등, 신생문화 형성, 성 정체성,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하류계층의 스포츠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Adler & Adler, 1991; Birell & Richter, 1987; Crossett, 1995; Donnelly, 1980; Foley, 1990; Klein, 1991; Pearson, 1979; Theberge, 1995; Vaz, 1972; Wacquant, 1989, 1992, 1995a, 1995b), 국내에서는 스포츠 문화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하위 문화적 특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청소년 댄스 문화, 골프 동호인, 청소년 스포츠 활동, 테니스 동호인, 국내 기혼 여성 축구 동호인, 여성 인라인 스케이팅 동호인, 여성 테니스 동호인 등이 포함되며, 김숙영, 원영신(2000), 김찬룡(2004), 이강우, 김석기(2001), 임수원(1999a, 1999b, 2000), 한태룡(2003), 이혁기(2005), 박창범(2006), 서재하(2007)의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함으로써 하위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골프, 테니스 등의 동호회를 통해 성인 동호

인들의 문화도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들의 스포츠 하위문화에서는 비주류로서 불평 등에 맞서야했던 새로운 문제점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들은 스포츠 하위문화가 전체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하위문화의 탐색은 전체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Luschen(1969)은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스포츠가 구조화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스포츠에서 형성된 동호인 하위문화의 탐색적 접근은 한 집단문화의 분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내의 스포츠와 문화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학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근 국내 자전거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자전거문화가 새롭게 생성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문화, 특히나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동호회 참가자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자전거 하위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새로운 자전거 하위문화로써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S리그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새로운 자전거 하위문화로써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S리그 동호회의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새로운 자전거 하위문화로써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S리그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이전에 자전거동호회와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의 양적,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료 해석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는 동료연구자와 정보제공자들의 검토 및 조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관성을 감소시키고, 연구의 신빙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이해를 위해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자전거동호회

본 연구에서는 동호회 활동이란, 동일한 관심사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조직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송국, 2016재인용; 황금찬, 2008). 우리나라의 자전거동호회는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전거동호회란, 성인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2)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대한자전거연맹(KCF)에서 주최/주관하는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는 UCI(세계사이클연맹) 사이클링 포 올(cycling for all) 규정 및 KCF 특별 규정에 따라 공식 동호인 경기로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한자전거연맹 동호인 선수로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최/주관하여 사이클 저변을 확대하고, 각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의 카테고리 별 순위를 통한 동호인 상호 간의 동기부여 및 자부심 고취 등으로 국민 레저 및 건강 증진 활동에 기여하며, 엘리트와 동호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회 중 대표적인 것이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TC)이다(대한자전거연맹 동호인 규정).

3) 하위문화

사전적 의미에서 하위문화는 특정한 문화 체계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구성원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공유하는 믿음, 가치, 규범의 체계를 의미한다(임수원, 1999: 41). 다시 말해, 하위문화는 광범위한 문화 내에서 사회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의 특정된 입장과 관련된 문화 형태를 의미한다(Hartley et al, 1984). 이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큰 범주에 속하면서 상이한 속성들로 구분되는 여러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Hartley et. al, 1983: 229-231)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노동자 계급 내에서는 청소년 노동자 집단, 성인 노동자 집단과 같은 하위 범주가 연령에 따라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노동자 계급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세대라는 변수의 차이에 의해 일부 문화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강명구, 1995: 132). 즉, 하위문화는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자원, 메시지 영향력 등을 교환하는 사회적인 그물망이다. 하위문화의 차원은 그들의 구성

원을 연결하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의미, 상징, 의복, 장비, 가치, 믿음, 규범, 태도, 언어, 의식, 그리고 행동 유형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Nixon, 1992: 22).

II. 이론적 배경

1. 자전거동호회

최근에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자전거 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13개 시·도 연합회에 소속된 120개의 시·군·구 연합회가 있으며, 등록된 회원 수는 약 7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동호회의 회원 수는 대략 100,000명으로 추산된다(국민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 2009).

동호회란 ‘취미나 기호를 같이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네이버백과사전) 자전거 동호회는 다양한 종목 중 자전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정의한다. 자전거 동호회는 자전거 인들이 모여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모임으로 주로 때로 모여 자전거를 타는 그룹 라이딩(Group riding)을 한다. 자전거 동호회는 친목 도모, 자전거와 관련한 정보 교환, 자전거 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갖게 한다.

2.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1) 자전거 개인도로경기

개인 도로 경기는 올림픽에서 주행 거리가 남자 엘리트는 250~280km, 여자 엘리트는 100~140km로 정해져 있다. 이 경기는 일정 거리를 정하여 참가하는 개인 도로 경기이다. 출전 선수들은 동시에 출발하고 결승선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선수 개인의 등수가 결정된다.

선수들과 감독은 출발 서명 장소에 집결하여 출발 서명 후 출발선에 모여 동시 출발 한다. 선수들은 경기 중에는 특정 장소에서 지정된 임원에 의해 소속 팀 차량을 통해서만 음식물을 공급받아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음식물 공급은 출발로부터 50km 이내와 결승선으로부터 20km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종 10km 코스 이내에서는 어떤 차량도 선수를 추월할 수 없다.

경기 중에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선수는 소속 팀의 기술 요원이나 중립 차량으로부터 장비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위 분류는 항상 결승선 통과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사진 판독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 동일 그룹 내의 선수들은 동일한 기록 시간으로 간주된다(대한자전거연맹 동호인 규정, 2007. 6 .27).

2) MCT 리그

MCT 마스터즈 리그는 S리그와 D리그로 나누어진다. 리그 내 성별과 연령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은 연령의 구분이 없는 Ca.W 단일 카테고리 구분이 되어져 있다. 남성은 연령으로 구분된 16세 - 18세의 Ca.J, 남자 19세 - 29세의 Ca.1, 남자 30세 - 34세의 Ca.2, 남자 35세 - 39세의 Ca.3, 남자 40세 - 44세의 Ca.4, 남자 45세 이상 남자 45세 이상 Ca.5로 이루어진 6개의 세부 카테고리 운영이 되고 리그의 성별, 연령 구분 없는 전체 기록을 합산해 랭킹을 부여한 Ca.G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D리그에는 활동 팀과 등록 인원의 제한이 없다. 단, 투어 별 출전인원에는 투어 별 코스에 따라 200(±20)명의 제한이 있으며 팀별 최대6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 리그를 2회 이상 개최를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전반기의 D리그 상위 15개 팀은 후반기에 S리그로 승격 된다. 승격 시 개인 및 팀 획득 포인트는 50% 삭감된다.

S리그에는 활동 팀과 등록 인원 35개 팀, 리그별 팀 등록 인원8명의 제한이 있으며, 투어 별 인원은 최대6명 까지 출전이 가능하다. 단, 팀 내 Ca.J / Ca.W 선수 출전 시 최대 7명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 해당 연도 전반기와 후반기 기준 전반기 S리그 21~35위의 하위 10개 팀은 개인 및 팀 획득 포인트 50% 삭감되어 후반기에 D리그로 강등되며, 모든 리그의 선수들의 타 팀 이적 또는 고의적 해체로 승격 또는 잔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팀 소속선수 전원 고의성 여부에 따라 1~3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단, 전년도 등록선수의 군대, 해외 진출, 선수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의 부상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 하여 예외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상 방식에는 모든 리그 구간별 전체 1위, 2위, 3위, 카테고리 별 1위와 팀 단체 1위의 트로피가 수여되며, D리그 투어의 전체 1위 선수에게는 붉은색의 투어 저지를 시상, S리그 현재 종합 Ca.G의 1위 선수에게는 노란색의 저지와 트로피 시상, 카테고리 별 Ca.J, 1, 2, 3, 4, 5의 선수들 에게는 하얀색의 저지와 트로피를 시상하고, 리그의 단체종합 1위 팀에게 트로피를 시상한다.

시즌 종료 후 리그 잔류와 승격의 기준은 해당연도 S리그 팀 성적 1~25위 잔류, D리그 팀 성적 1~5위 승격하게 되어 2024년부터 S리그 30개 팀으로 운영 하게 된다. 단 차기년도 S리그 불참 팀 발생시 S리그 팀 성적에 따라 차 순위 팀에게 기회 부여하되, 차 순위 팀 역시 불참할 경우, 추가 기회 없는 조항이 있다.

3. 스포츠 하위문화

1) 하위문화의 정의

문화는 복잡한 층위를 이루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표현되는 삶의 형식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특정집단은 자신들의 사회적, 물질적 조건에 따라 문화적인 실천을 선도함으로써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인 실천의 결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를 하위문화라 한다(석승혜, 1999). 또한 이러한 하위문화는 지배집단이 설정한 문화를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지배집단의 반발, 저항, 타협 등의 반응 형태로도 나타나는 결과물이다(한태룡, 2003). 이처럼 하위문화의 생성 이전에는 지배문화가 존재 하였다.

하위문화의 개념은 미국의 범죄사회학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 폭주족, 비행청소년들이 형성한 그들만의 문화가 하위문화라 명명되어진 것이다. 즉 하위문화는 사회주류가 가지는 문화인 지배문화로부터 일탈하는 현상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지배문화와 하위문화 형성의 과정은 한 사회에서 문화는 증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지배 권력을 가진 집단은 다른 집단을 통제하여 그들의 위치를 재생산하며, 이를 통해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강명구, 1995). 이러한 지배문화 또는 주류집단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하류문화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지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위문화는 지배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그 속에서 지배문화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데 이런 하위문화의 핵심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치체계와 규범체계는 가치와 규범의 많은 부분에서 일반 문화와는 다른 동기와 중요도를 가지며, 상위 문화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성을 갖추게 되고, 행동을 규제하기 시작하여 하위문화의 형성을 유발한다(Wolfgang & Ferracuti, 1967). 이처럼 하위문화는 지배문화에 대항하는 저항적인 문화로 인식되지만, Crosset과 Beal(1997)은 하위문화의 공유된 가치와 규범이 전체문화와는 다르지만 완전히 반대되거나 전체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하위문화는 더 넓은 문화적 환경에서 존재하며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임수원(1999b)은 모든 문화가 반문화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하위문화라고 해도 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인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저항적인 하위문화뿐만 아니라 주류문화를 변형하고 재생산하는 다른 형태의 하위문화도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특정적 하위문화는 Donnelly(1993)의 하위문화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하위문화를 반발 하위문화(subculture of resilience), 변형 하위문화(subculture of transformation), 그리고 반

문화(counterculture)의 3가지 형태로 분류 하였다. 이 중 변형 하위문화는 최근에 많이 관찰되는 하위문화의 형태이다. 현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적응과 동질성을 가진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동호회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동호인 이 가지는 문화 역시 최근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변형 하위문화에 속하며, 동호인의 문화는 최근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이러한 동호인 문화는 대부분이 주류 문화에 반하지 않으며 주류문화에서 변형된 그들만의 문화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있다.

하위문화는 문화속의 다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류계층의 문화, 화이트칼라의 문화, 농민의 문화, 도시의 문화, 청소년문화, 군사문화, 불량배 집단의 문화 등 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하위문화들을 하나의 종합적인 문화로 본다면 그 안에서 또 다시 하위문화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노동자 계급 내에서는 청소년 노동자 집단, 성인 노동자 집단과 같은 하위 범주가 연령에 따라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노동자 계급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세대라는 변수의 차이에 의해 일부 문화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강명구, 1995: 132).

이처럼 하위문화의 파생적인 구조는 최근 사회의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무수히 많고 다양한 하위문화를 생성한다. 이러한 하위문화들은 새로운 문화적인 코드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위문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시사하며, 문화 환경의 소비와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경제, 정치 및 문화 변화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한태룡, 2003). 따라서 하위문화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리어 사회 변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하위문화 연구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스포츠 하위문화

하위문화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 규범과 가치에 근거하여 수유사회와 구분되거나 모순되는 정체성을 형성할 때 발생한다(임수원, 1999b).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주류문화의 핵심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형된 하위문화들이 주류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학자들은 하위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Arnold(1970)은 하위문화가 특정 문제나 박탈, 기회에 대항할 때 사회적 거리, 사회적 갈등 또는 생활양식의 차이를 나타내며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성된다고 언급하였다.

스포츠는 사회 전체 문화 내에서 하위문화로 간주되며, 다른 하위문화의 생성과 발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Pearson(1976)는 하위문화의 생성과 발전을 설명할 때 개인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 문화적 수준의 세 가지 선행 조건을 고려하였다. 이를 스포츠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특정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사회적 상황에 있음을 발견(클럽의 결성, 혹은 같은 시설물 이용)
- ② 특정 스포츠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배제
- ③ 집단에 형성된 독특한 태도의 공유, 신념, 행동들이 가시화
- ④ 지배문화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파기
- ⑤ 개인적, 집단적 신념, 태도, 행동이 견고해짐
- ⑥ 새로운 충원

이렇듯 스포츠 하위문화의 생성과 발달 과정 모델에 따르면, 모든 스포츠 하위문화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같은 스포츠 내에서도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임수원, 1999b). 이처럼 다양한 스포츠 하위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Donnelly (1985)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동일한 집단
- ② 공동의 문화적 특징을 소유한 구성원 집단
- ③ 믿음, 관습, 가치, 규범, 언어, 의상 등과 같은 일련의 독특한 구성요소에서의 창조와 변화
- ④ 지배적인 문화의 성질과 다른 명확하고 독특한 성질
- ⑤ 생활양식에 대한 참여 정도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양의 다양화
- ⑥ 활동, 이해관심, 믿음의 영역과 잠재력에서의 다양성으로 개인적인 성장의 여지
- ⑦ 정체성, 지위, 우정, 지식, 돈과 같은 보상을 통해 참가자의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요구의 충족
- ⑧ 정보를 공유하고, 퍼뜨리고 그것에 의해 하위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교류의 수단

3)스포츠 동호인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

스포츠는 전체 사회에서 하위문화의 한 부분으로 위치하면서, 문화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는다. 스포츠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특정 사회에 속한) 문화에 의해 구조화된(Luschen, 1969). 따라서 스포츠의 의미는 특정 사회 내에서 경제적, 정치적 조직 및 사회의 가치 체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사회의 가치가 스포츠에 반영되며, 스포츠를 통해 더욱 굳게 정착하는 문화 형태를 스포츠 문화라고 부른다(한태룡, 2003). 스포츠 문화는 전체 문화에 의해 구조화되므로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 주류 문화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반대로 스포츠 문화가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스포츠 문화는 사회 제도 안에서 대중문화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문화는 대중들의 문

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영갑, 1996).

스포츠 동호인들의 문화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성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스포츠 동호인 문화는 스포츠 문화의 하위문화로서 새로운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Nixon(1992)은 하위문화를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자원 교환, 메시지 교류, 영향력의 네트워크로 이해하며, 하위문화의 차원은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성원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의미, 상징, 장비, 가치, 믿음, 규범, 태도, 언어, 인식, 행동 유형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 동호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 하며 그들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스포츠 동호인들은 자신들에 의해 생성된 하위문화를 통하여 지배적인 주류문화와의 차이를 만들며, 비슷한 믿음, 관습, 가치, 규범,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여 정체성과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 이에 임수원(2000)은 스포츠 하위문화에 참여 빈도와 관계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 활동의 의미를 함께 공유 한다고 말하였다.

Steele와 Rurcher(1973)는 동호인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문화적 산물로 정의하며, 이는 사회적 또는 심리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행동 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변화와 결합하여 스포츠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의를 가진 스포츠 하위문화가 형성되었다.

확실히, 새롭게 생성된 스포츠 동호인의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스포츠 동호인들의 문화는 생활양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주변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쉽게 관찰되고 경험된다. 이처럼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문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연구는 스포츠의 자전거 MCT투어 S리그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서술적이고 질적인 연구이다.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은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며, 문화를 공유하는 그룹이나 개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Wolcott(1994)에 따르면 이 방법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룹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와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며, 문화를 공유하는 그룹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자전거 MCT투어 S리그 동호회의 스포츠에 대한 공유된 문화를 가진 그룹의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자전거 MCT투어 S리그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 연구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7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인 “비대표적 표본(non-representative)”을 채택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의 연구 문제, 이론적 입장, 분석 방법, 그리고 설명을 도출하고자 하는 집단이나 범주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Jennifer, 1996).

연구자가 참가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전문가 집단과 자전거 MCT투어 S리그 동호회를 주도하는 집단의 대표와 회의를 거친 후,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고 기준안에 적합한 참가자를 추천 받아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자전거 MCT투어 S리그 참여 자격이 있으며, 자전거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라 인식하고 있는 참가자들로 구성하도록 하며, 참가 대상자들의 프로파일은 <표 1>과 같다.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동호회 직책	동호회 활동 기간
연구참여자#1	남	47	자영업	회원	11년
연구참여자#2	남	43	자영업	회장	9년
연구참여자#3	남	39	프리랜서	팀장	9년
연구참여자#4	남	51	생산직	회원	17년
연구참여자#5	남	47	자영업	회장	8년
연구참여자#6	남	40	회사원	회원	10년
연구참여자#7	남	43	회사원	회장	11년

<표 1> 연구대상

3. 연구절차

자전거 MCT투어 S리그 참가자의 하위문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거 MCT투어 S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7명의 연구대상 중 1명을 대상으로 예비면접(pilotinterview)을 진행하였다. 예비면접의 목적은 면담 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면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면접에서 제기된 문제는 최종 면담 시 보완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자전거 MCT투어 S리그 참가자의 하위문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 구조화된 면담(nonstructuralinterview) 과 반구조화(semi-structuralinterview) 을 혼용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이끌어 내도록하여 모두 2차례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자전거 MCT투어 S리그 참가자의 하위문화 특성과 심리적인 경험 내용을 얻기 위해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통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사방법으로, 질적 면담은 이론적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수단이다.

이 과정은 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지에 대하여 발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Rubin & Rubin, 1995). 질적 면담은 인간 행동 및 의식과 연관된 문화, 본질, 의미, 과정 그리고 제반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이철원, 2001).

각 연구대상에 대해 공식적 면담을 실시 할 예정이고,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각 면담은 연구 대상자에 의해 지정된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의 전 과정을 스마트폰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면담내용에 있어 먼저 자전거 동호회 활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각 과정 속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준비한 면담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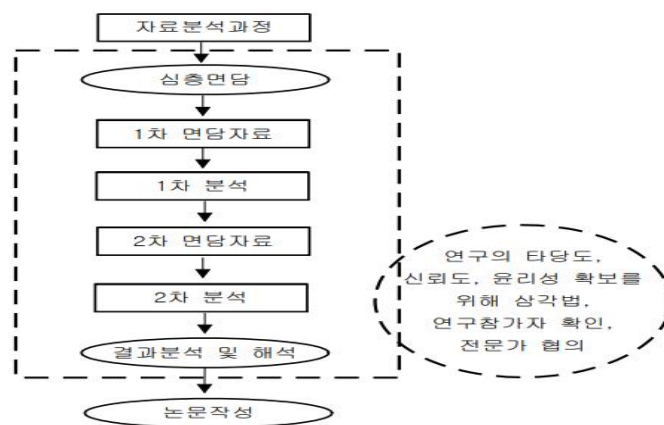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녹음한 자료는 우선 글로 옮겨 문서화한 다음, 문서화된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단위화, 부호화, 주제화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고, 전사하여 정리된 자료를 연구 참가자별로 프로파일화하여 참가자의 순서에 따라 분석 순서를 정하였다.

둘째, 개인별 프로파일을 반복해서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단위화 하였다. 단위화는 문단 나누기 방식처럼 의미가 같은 내용끼리 절이나 문장으로 분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면담질문지를 기초로 해당영역과 내용에 해당하는 부호화 작업을 하였으며, 이는 자료의 분류와 조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참가자별, 또는 영역별, 질문번호별로 분류할 수 있어 자료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넷째, 부호화가 끝난 후, 개인별 프로파일을 모아 하나의 통합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범주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부호화 작업에서 생성된 범주를 기준으로 서로 연관이 깊거나 동일한 내용끼리 통합·축소·분리하여 범주화 하여, 이를 통한 최종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 자료 분석 과정

6.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1)삼각법(triangulation)

삼각법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원, 방법, 탐구자, 이론을 활용하여 협력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Patten, 1990).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관련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연구 참가자의 특성과 경험을 파악하며,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연구 참가자 확인(member check)

연구 참가자 확인 방법은 참가자에게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ba & Lincoln, 1989).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녹음 자료를 문서화 한 후, 문서를 연구 참가자에게 읽어 볼 수 있게 확인하여 연구 참가자 스스로가 면담 내용 중 잘못된 내용, 추가하고 싶은 내용 등에 대한 견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3)전문가 협의(specialist meeting)

전문가 협의는 연구자가 오류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adgett, 1998).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시작부터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전문 지도자 2명, 전공 관련 교수 1명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다.

7. 연구의 윤리성

질적 연구는 개별 참가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연구 참가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또한 참가자의 신분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 하였다. 더불어 모든 자료는 거짓, 임의 수정, 생략 등이 없이 원시 자료(raw data)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면담 중 언제든지 연구 참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IV. 자전거 MCT투어 S리그 동호회 문화의 특성

1.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 속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

1) 속도에 따른 구별 짓기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라 그룹이 구분되어 주행을 하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동일한 동호회 내에서도 개인의 속도에 맞는 그룹을 찾아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속도가 낮은 참가자들은 상위 그룹의 주행에 참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함께 주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1이 언급한 출발과 동시에 그룹에서 이탈해 따로 주행을 하게 되는 부담감과 다른 참여자들에게 민폐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그룹에서 이탈해서 혼자 주행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의 차이로 인해 주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각자의 속도에 맞는 그룹에서 활동하기 위해 각기 다른 주행 계획을 공지하고 있었다. MCT S리그 참가 동호인들은 높은 주행 강도를 통한 훈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호회 내에서도 별도의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 교류하고 주행을 공지하고 있었다.

라이딩 공지는 공식 카페나 단체톡방에서 이루어지는데 레이스 위주로 타는 팀원들은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레이스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그 운동에 나오다 보면 출발과 동시에 떨어져서 각자 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항상 라이딩 공지를 띄울 때 강도라는 걸 정해서 각자 알아서 실력별로 나눠서 주행합니다(연구참여자 #1).

MCT팀원 단톡방이 있어요. 19명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훈련 공지는 그쪽 방에서 전부 다 나오고 또 큰 틀은 카페에서 주말 주행이 또 공지가 되고 그러면 같은 날에 딱 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MCT 나갈 팀원들은 쉰 주행으로 가는 거고 일반 팀원들은 좀 약한 주행 공지를 보고 가요(연구참여자 #4).

주말에 번개가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실력에 따라서 만약에 따라 나가서 민폐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안타요. 사람들이 간혹 어디 번개에 참석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멤버가 엄청 세져요. 부담되잖아요. 개인적 사정이 생겼다 그래요. MCT팀원들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팀장이 주행 공지를 올려요 (연구참여자 #3).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기량이 떨어지는 회원들은 동호회 주행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회원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주행을 할 경우, 각 그룹의 실력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기량이 뒤처지는 참가자들은 활동에 부담을 느끼며 그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박상현, 권순용(2010)은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실력 차이로 인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상급자와 초보자로 실력이 구분되는 동호회에서, 회원들과의 관계는 수평적 대인관계를 형성해야만 지속적인 동호회 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참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담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자전거를 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각자의 기량에 맞는 여러 주행 그룹을 형성하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MCT S리그 그룹과 일반 그룹 사이에는 속도에 따른 구분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못 따라가니까 라이딩이 부담스러워 자전거도 안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굉장히 복잡적이고 얽히고 얽혀 있는 트러블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같은 날에 여러 번개가 올라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편이고 레이스 할 사람들은 레이스 번개에 올리고 가볍게 다 같이 팩 주행할 번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리고 있고 또 팀 내에 주행 부장이 따로 MCT반 번개는 MCT반에서 각자 알아서 올리고 해서 트러블을 조절하는 편인데 그거는 조절이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갈등은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고 가야합니다(연구참여자 #2).

빠른 속도를 따라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고 민폐가 될까 봐 안 나오고 그러다가 점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원래 48명인데 그 중 조금씩 활동이 점점 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꾸준히 타는 사람은 계속 꾸준히 타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타들 못 따라올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번개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실력에 따라서 분위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또 재밌게 타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는 하위 그룹의 동호인이 S리그 그룹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 까지 함께 주행하려는 배려를 하지만, 중반부 이후로는 각자의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력이 하위 그룹의 동호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 하위 그룹의 구성원과 함께 달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존 S리그에서 주행하던 구성원과 새롭게 참여한 구성원이 서로 부담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각자의 실력에 맞는 그룹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속도별로 다수의 주행이 공지되지만 각 주행 그룹의 참석에 제한이 없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Bourdieu(1977)는 동호회 내에서도 실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지나친 분류로 인해 상대방에게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동호회 구성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동호회 문화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 팀원들이 MCT훈련 번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까지는 같이 가고 다 챙겨줄 수는 없지만 반환점을 돌고 복귀 시점에는 어차피 길을 다 알고 실력대로 와야 하는거라 그 사람을 챙겨줄 수는 없어요. 또 나오는 친구들도 다 훈련하러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마저 전부 다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복귀할 때는 그거죠. 살아남기. 이럴 때는 서로가 부담이에요 잘타는 사람은 챙겨야 하고 못타는 사람은 따라오기 급급하고(연구참여자 #4).

Bourdieu(1977)는 상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 수행 능력으로 구별 되도록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1은 MCT 동호회 내에서 상위 실력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MCT S리그에 참여하지 않는 동호인들은 각자의 그룹 주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동호회에 속해 있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속도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MCT S리그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별도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여 독립적인 주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MCT 동호회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속도에 따른 구별 짓기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운동 번개를 많이 띄우고 라이딩 성향이 잘 타는 친구들과는 거리에 있다 보니 솔직히 잘 섞이지 않아요. 팀 전체 회식 때는 보긴 하지만 운동번개에서는 잘 섞이지 않아요. 같은 동호회지만 잘 모르는 열골도 간혹 있을 때 가 있어요(연구참여자 #1).

2) 폐쇄성

동호회의 명예와 자부심을 중요시 여기며, 검증된 실력과 성품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다. 권기남(2009)은 사회 자본이 특정 모임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자격 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참여자 #5는 실력과 인성의 검증을 거쳐 기존 회원 수를 줄였다고 한다. 동호회의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은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임수원(2000)은 한 사람의 인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장기간에 걸쳐 접촉해야 알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가함으로써도 인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인원이 많을수록 다수의 분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선별된 소수의 인원만이 활동 한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동호회 보다 MCT 참가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동호회에 가입될 수 있는 현재 동호회의 구조는 많은 변화를 거치고 현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시합 참가 위주로 타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친분을 다지는 팀입니다. 회원이 80명 가까이 됐었는데. 많이 정리 했어요. 회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라이딩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실력을 봐서 선발한 회원 50명 정도 유지 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5).

저희 팀은 딱 열다섯 명이 데예요. MCT를 나가고 있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동호인 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부딪히고 분란이 사람이 많을수록 더 생기겠죠. 우리 팀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진 MCT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만 모아 놓은 것도 팀에서 리빌딩을 계속 해오면서 이게 맞겠다 싶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6).

쟁을 목적으로 하는 MCT S리그 동호회는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호회 내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연구참여자 #2는 실력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동호회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회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동호인은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S리그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MCT가 워낙 위험 하고 힘들어서 매년 경쟁력 있는 선수를 확보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주위에 권유를 많이 하죠. 혼자 타거나 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짝이 보이면 권유를 많이 하죠. 짝이 보여야 해요. 시합을 같이 뛰어보고 잘 타면 팀원으로 스카웃을 하는거죠(연구참여자 #2).

MCT 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동호회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동호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회원을 탈퇴시키고, 현재는 남성 회원만을 받는 동호회라고 언급 하였다. 또한,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의 본래 목적을 넘어서 동호회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동호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들을 탈퇴시키거나, 동호회 내에서 여성 회원과의 교류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남성을 선발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권김현영, 나영정, 루인, 엄기호, 정희진, 한채운(2001)의 연구에서 언급된 젠더 이분법이 여성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현실과 개념체의 남성 중심성을 은폐한다는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지금까지 회원을 탈퇴시킨 케이스는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는 팀 이미지를 실추시킨 그런 경우예요. 저희 팀이 만들어졌을 때 울산을 대표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취지로 시작한 건데 그 회원이 지속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면서 안 좋은 소문을 흘리고 다녀서 주위를 주다가 그 회원을 자른 적이 한 명이 있었어요. 애초에 저희가 여성을 안 받는 것도 그런 이유로 시작한 거예요(연구참여자 #3).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들 중에서는 자전거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회원들에게 관여하려는 구력 중심의 문제 회원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스포츠 동호인들은 나이, 경력, 그리고 클럽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계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헌수, 2015; 임변장, 1994). 연구참여자 #2는 자전거를 타지는 않지만, 동호회 활동 경력을 앞세워 다른 회원들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유명 회원들을 정리하기 위해 회비를 인상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회원 가입은 회원들의 검증을 거치게 되지만, 회원 탈퇴에는 강제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시도 하였다고 한다.

어디든 모임에 몇 명만 모여 있어도 이상한 사람 한 명 있듯이 특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40여 명이 있다 보니까. 팀에 회비를 앞으로 더 올리려고 해요 기존에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점점 열정이 줄게 되면서 자전거를 안 타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 회원들이 또 연차가 있다 보니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괜히 자전거는 안타면서 구력만 앞세워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의 물을 흐리기도 해요. 회비를 더 올림으로써 활동 안하는 유명 회원들이 다시 열심히 타거나 팀에서 좀 물갈이가 됐으면 해요(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 #7은 MCT S리그 회원의 안전을 위해 동일한 그룹 또는 MCT 동호회별로 주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룹별 주행은 상호간의 주행 특성을 인식하고 사고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훈련에서는 고속으로 단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다. 따라서 MCT S리그 동호회 이외의 다른 동호회와의 주행은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폐쇄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특성을 보인다. 조직의 여러 특성 중 하나는 내부 구조, 관리 등의 요소에 의해 외부 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영춘, 1984).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저희 끼리 주행을 하려고 해요. 라이딩을 하다 보면 휠 겹치는 사고가 많잖아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라인을 이탈해서 뒤에 드래프팅 하러 쫓아가거나 하는 위험한 행동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요. 저희끼리 타면 누가 어떤 주행으로 타고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하고 그런게 다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대회에 나가는 선수 팀끼리 모아놓은 특방

이 있는데 거기서 주말에 한 번씩 연합라이딩 계획도 세우고 그런 거 빼고는 거의 팀 위주로 라이딩 하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안전 문제로 저희 팀끼리만 주행을 진행해요. 저희 팀은 신호나 안전 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대회전에 실력이 검증된 다른 MCT팀하고 같이 한두 번 정도 하는 라이딩 이외에는 저희 팀끼리만 주행을 하려고 있어요(연구참여자 #7).

3) 차별적 멤버 선발

연구 참여자들은 MCT S리그의 참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동호회 내에서 실력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인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개인의 실력이 팀과 조직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동료들 간에도 실력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민경현, 유성진, 최영래, 2018). 이러한 현상은 S리그 참가 인원의 제한과 S리그의 잔류를 위해서는 동호회와 개인이 성적을 달성해야 하는 경쟁 집단의 특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참여자들은 S리그 시합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많은 경우 동호회 내에서 자체적인 선발전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력의 차이가 S리그와 D리그의 멤버 선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언급 하였다. D리그에 선발된 인원들은 경험에 의미를 두거나 즐기는 사람들, 실력이 언제든지 S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5는 S리그에 선발된 참가들은 동호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경쟁을 통해 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대표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은 선발에 있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이 실력이기에 노력한 사람은 S리그의 선수로 시합을 참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MCT S리그의 동호회 대표로 선발되어 나가는 것은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정은(2003)은 고가의 자동차는 경제 자본이 될 수 있는데 더불어 그 차량을 소유하고 다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하는 상징 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상징 자본은 한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권위와 명예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의례와 전략을 포함한 매우 유동적인 자본의 형태이다.

나누는 기준은 성적이 우선적인 팀이라 실력별로 나눴죠. ... 중략 ... 현재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S가 내림 차수로 내렸을 때 실력이 좋은 사람들 D가 약간 실력이 좀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S는 대회에 무조건 참석 D는 한두번만 나와도 된다. 일단 선발의 기준은 선수 실력별로 S와 D를 나누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6).

S리그에 잔류하기 위해 팀이 성적을 내야 되니까 멤버 선발은 무조건 잘 타는

순입니다. 그냥 MCT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D리그로 그 사람들 끼리 따로 모여서 투어에 못 나가도 상관없고 부담 없이 즐기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에서 S리그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죠(연구참여자 #5).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저희 안에서 S리그를 원하는 사람 8명 중에서 선발전을 통한 6명만 대회를 뛰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가 운동한 만큼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한 사람은 나갈 수 있다고 서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7).

2. 동호회의 문화적 특성: 남성 중심의 속도문화

1) 남성 중심 문화

MCT동호회에는 여성 선수의 비율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6은 동호회 내에서 여성 선수가 1명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호회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 여성 회원의 비율이 남성 회원의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회원이 없는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7은 특히, 로드 바이크를 타는 여성들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반면 산악자전거 동호회에서는 중장년 여성회원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이전의 동호회에서 여성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는 남성만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소수의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한 결과, 남성 중심의 동호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태룡(2003)은 동호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회원을 선발하는 것이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호회 회원 간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선별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였다.

현재 인원은 MCT S리그가 7명 그리고 D리그가 7명인데 그 7명 T.O 안에서만 움직이고 여자는 그리고 또 별개로 한명 그렇게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14명에 여자 한 명. 여성 선수는 많이 없어서 한명만 활동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6).

특히 로드바이크를 타는 분들 중에 여성분이 드물고 여성분이랑 같이 교류할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젊은 여성이 적은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MTB동호회나 이런 데는 중장년 여성이 많은 것 같은데 로드를 타시는 젊은 분들이 자전거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제 생 각인데 젊은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하기가 힘든 운동 같아요.(연구참여자 #7).

남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팀을 만들기 전에 또 다른 팀이 있었는데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여왕벌 모임이 생겨서 남성 회원들이 편 가르기가 되고 이간질도 있고 해서 애초에 그런 걸 차단하고자 남자 회원들만 받기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3).

MCT S리그 동호회에서는 속도 경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여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여성 회원이 S리그 시합을 경험하고 빠른 속도에 살아남기 어려워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여성회원 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남성 회원들 또한 시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활동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S리그 동호회에서 빠른 속도를 경쟁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여성 회원뿐만 아니라 남성 회원들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옥(2002)은 경쟁이 주로 남성 중심적인 스포츠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며, 남성들은 여성들과는 다르게 스포츠와 야외활동을 통해 남성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결연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한다. 조형(1992)에 따르면 남성성은 쉽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특정한 남성적인 특성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성적인 특성들은 정신적으로 강하며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성의 대표적인 특징들로 언급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 영입 과정에서 나이 많은 형님들도 나이 먹고 그런 시합 나가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빠지시더라고 그냥 옆에서 응원해 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성 팀원 한 명 있었는데 같이 시합을 몇 번 뛰어보니까 MCT S리그 자체가 빠른 스피드로 주행하는 시합이라 살아남기 힘들어서 포기를 하더라구요(연구참여자 #4).

2) 속도에 따른 서열문화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 속도에 따른 서열 문화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박창범과 임수원(2005)은 운동 기능의 우수성이 동호회 내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1, #2는 상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동호회 운영에서 결정권과 발언권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자전거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발언권이 결정권도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화는 당연하게 생각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호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잘 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MCT S리그의 동호회에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높은 서열을 가지고 높은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는 서열과 자존심 때문이라고도 언급되었다. 배정섭, 서광봉, 이민석(2018)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개인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

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MCT S리그 동호회에서 높은 서열을 쟁취하기 위해 자전거를 더 열심히 타게 되어 동호회 회원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잘 타면 그 사람의 발언권에 좀 힘이 실리겠죠. 하다못해 회식 또는 운동 코스를 잡는 일 아니면 단체 팀 복을 맞춘다든가 그랬을 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해요(연구참여자 #1).

사람이라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자전거 잘 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실력이 좀 좋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호회다 보니까 내가 자전거도 잘 못 타고 활동도 많이 안 하고 자전거 탄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면 그렇겠죠. 할 말이 별로 없겠죠. 활동 많이 하고 내가 자전거 잘 타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연구참여자 #2).

서열 문화로 인해 동호회 내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연구참여자 #5는 전국에서 최상위권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서열 문화로 인한 갈등 때문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는 개인의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을 한태룡, 박보현, 한승백, 탁민혁(2013)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 즉, 남성 중심의 강한 프라이드를 가진 다수의 구성원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동호회를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서열 문화 완전히 많이 존재하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경향이 많습시다. 솔직히 잘 타면 큰소리 치고 남자는 대장하고 싶잖아요. 자전거는 제가 봐도 개인의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팀을 다른 팀을 옮기는 경우도 우리 팀에서는 종종 있습니다(연구참여자 #5).

서열문화는 동호회 내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전체 문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실력을 갖췄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시합장에서 주위의 반응이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스포츠에서는 불가피하게 실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며, 이는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임새미(2016)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무대에서 실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쌓이고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전거에 몰두하고 경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속도에 따른 서열 문화가 형성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솔직히 말하면 1등 하다 보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합장 나가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출발선에 서면 제일 뒤에 섰어요. 앞으로 가고 싶어도 사람들

이 자리도 안 피해주고 뒤에 서라고 딱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 나고 얼굴이 알려지니까 자리를 딱 피해주고 앞쪽에 자리를 만들어줘요. 같은 선수들끼리 그랬을 때 뭔가 된 듯 한 그런 기분 남자로서는 한 번은 느껴보는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3) 안전중심의 엄격한 훈련문화

자전거 운동은 높은 속도와 단체 주행의 특성으로 인해 방심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동호회 내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사고가 신생 동호회나 오픈톡과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모인 참가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직업 선수가 아닌 취미로 자전거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부상을 입게 되면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 #4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호인들은 경제적인 타격이 생겨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따라서 위험한 주행을 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제지를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자전거 타기 전에는 다들 편안하게 웃으면서 잘 지내다가 안장에 앉으면 많이 엄격한 편이죠. 위험하게 타거나 장난삼아서 타면 그때그때 바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크게 다치니까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부팀장이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팀장을 맨날 잡고 있거든요(연구참여자 #1).

목표는 안전하게 타는 게 제 목표고 진짜 만약에 낙차해서 골절이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게 되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제 목적이죠 부상 없이 또 좋은 동생들 좋은 형님들 좋은 인연을 계속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항상 또 자전거를 타면서 내 건강을 또 챙길 수가 있으니까 좋은 운동이라고 보는데 안 다치는 한 제일 좋은 운동이죠. 다치면 소용없어요(연구참여자 #4).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구력이 좀 차니까 다들 안전하게 타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는 방심할 때 혼자 탈 때 아니면 뭐 지금 쓸데없는 데서 혼자 자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자전거가 겹쳐서 사고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신생 동호회나 동호회 커뮤니티 오픈톡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타면 항상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십 명씩 모이면 끊어서 보내도 항상 사고가 한두 건씩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주행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주행습관이 좋지 못한 회원에게는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로에서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과 비싼 장비가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주행 습관을 갖는 회원들에게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갈등 상황도 발생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훈련 중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갈등이 자주 발생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Amason 및 Sapienza (1997)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에서는 안전한 주행이 갈등 상황보다 우선순위로 취급되며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주행 전에 다 잘 타는 사람이 형님 동생들 세워놓고 또 얘기를 하죠. 도로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사 복귀 사람도 무사 복귀해야 되고 자전거도 무사 복귀 비싼 장비 강조를 하죠. 비싼 장비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다들 신경 쓰고 그런 건 있어요. 또 주행 습관이 안 좋은 팀원들도 있긴 있거든요. 수신호 잘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좋은 팀원들도 있고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강하게 이야기 하기도 해요. 그게 트러블도 되거든요(연구참여자 #2).

왜 차를 뒤따라 가냐 왜 위험하게 타냐 이런 것들도 웃으면서 이야기해 풀 수 있는 건데 훈련 중에는 서로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웃으면서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질타를 해버리고 해서 서로 갈등이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연구참여자 #4).

MCT 내에서도 D리그와 S리그 사이에 기량 차이가 있어서 D리그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 #7은 MCT 시합 중에도 D리그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선수와 동호회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무모하게 주행을 하다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태룡(2003)은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S리그에 참여하는 선수와 동호회들은 실력이 검증되어 승급하여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D리그보다는 속도가 빠르면서도 더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로 인해 연구참여자 #2, #7은 계속 해서 S리그에 잔류하고 싶은 이유를 언급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MCT리그 외에도 동호회 훈련 상황에서도 검증된 MCT동호회 끼리 주행을 하는 폐쇄적인 동호회 운영 방식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보인다.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시즌 동안 사고가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번 크든 작든 사고가 꼭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작년이 정말 시끄러웠어요. 인명사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올해 MCT시합은 그래서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D리그는 신생팀이나 인원들이 자전거 구력이 좀 짧은 인원들이 많이 나오고 S리그는 그래도 검증된 잘 타는 사람들

올라올 만한 사람들만 S리그에 있다 보니까 인원이 100명씩 모여서 팩을 이루 워도 조용해요. 근데 D리그는 한 30~40명만 있어도 서로 욱하고 시끄러 귀가 아파요. 저렇게 욱을 하면서 타요 D리그는. 근데 S리그는 인원이 제법 많은데도 조용해요. 알아서 피해가고 맞춰가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 보면서 D리그로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연구참여자 #2).

S리그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D리그도 나쁘진 않은데 S리그는 어느 정도 잘 타는 친구들과 매너가 있는 반면 D리그는 신생팀도 많고 새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고도 더 많은 것 같고 무모하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D리그, S리그 둘 다 뛰어보면 S리그 같은 경우는 무모하게 파고 들지도 않고 매너가 있는데 D리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도 종종 많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S리그에서 좀 안전하게 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연구참여자 #7).

MCT S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경쟁 대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전거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자전거로 리그에 출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참여자 #3, #6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MCT 리그의 특성과 값비싼 자전거가 파손될 경우의 부담감으로 인해 대체 자전거를 사용하여 출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낙차 한번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MCT를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한테는 최상급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하거든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MCT D리그에서 어떤 친구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대각 주행을 한 거예요. 바로 뒤에 있던 친구가 넘어지면서 한 20명 정도가 다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전거가 완파돼서 다 버리고. 완파되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경쟁대회라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최상급 자전거는 갖고 나가지 말아라 하거든요. 웬만하면 서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더 낫다고 말 해요(연구참여자 #3).

MCT S리그를 나가는 분들 중에 좋은 자전거가 많긴 하죠. 하지만 보통은 서브 자전거가 있으면 그걸 타고 나가요 왜냐하면 워낙에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참가 했다가 사고가 나서 망가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보다는 많이 슬프겠죠(연구참여자 #6).

동호인들은 장비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거든요. 고가의 장비를 쓰지만 한 번이라도 낙차를 하면 진짜 몇 백 만원 우습게 깨지니까 그런 부담감 무시 할 수 없죠(연구참여자 #2).

MCT S리그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최상급의 자전거로 출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그 차이가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긍정적

인 요인들이 적다고 이야기 한다. 연구참여자 #5는 최상급 자전거와 경기력의 영향 보다는 개인의 능력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 #5는 최상급의 자전거로 출전하는 것은 자기만족에 더 가깝다고 하였다.

비싼 건 타지 않고 휠도 좋은 것도 타보고 했는데 솔직히 자전거에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지만 자전거에 돈 투자하는 게 나는 제일 아깝다 봐요.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건만 되면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는 싶지만 현재 가성비 쪽으로 꾸며도 모자람이 없어요. 아직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4)

MCT 수준의 선수들은 장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 일반 동호인들이 타는 최상급의 자전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파손의 위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중략 ... 물론 좋은 장비가 더 잘 나가고 기록도 잘 나겠지만 사실 큰 격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에 대한 차이를 못 느껴요 물론 어떤 자전거로 출전 하는 건 본인의 자유고 자기만족 아닐까요(연구참여자 #2).

경기력에서는 제가 주위 MCT선수들을 보면 최상급이 아니라도 그 밑에 거 가지고 뛰는 선수들을 봐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자기만족이고 자기 기분인 것 같아요. 저는 성적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 보고 개인의 능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5).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6은 상위권의 선수들은 값비싼 자전거가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해 얻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적지만 하위권의 선수들은 값비싼 자전거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고 자전거를 통해 과시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였다.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2는 상위권 MCT 선수들과 비교해 일반 동호회 회원들은 좋은 장비에 대한 환상과 욕심, 그리고 자전거를 통한 과시 욕구를 많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상위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과 하위권의 참가자들의 자전거에 대한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운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며, 이는 동호회 활동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용, 오현택, 김영구, 2011).

자전거에 대한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적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메인 휠이 있지만 그냥 중국산 휠을 쓰고 물론 더 투자를 하면 더 좋은 반응과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

은 경우에는 동호인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성적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 상위권 선수들은 그런 것 같고 조금 밑에 있는 하위선수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과시를 하고 좀 더 좋은걸 써서 올라가고 싶은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6).

상위권의 선수들은 상급 자전거들을 타고 있지만 의외로 장비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아요. 반면 일반 동호인들은 좋은 장비 갖고 싶어 하죠. 궁급하고 내가 밑에 등급에 자전거를 타는데 더 좋은 자전거는 더 잘 나갈까 그런 궁급증 환상이 제일 클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장비 욕심이나 좋은 거 갖고 싶고 나는 뭐 이런 거 탄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3.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갈등

1) 위판을 위한 암묵적 합의

MCT S리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동호회와의 합병을 진행되고 있으며, 더 나은 환경에서의 활동을 위해 우수한 선수가 특례를 통해 동호회 간의 이적을 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3은 S리그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동호회들 간의 합병이 이루어 졌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적하게 되는 동호회에서의 특례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이적을 했다고 하였다. 상위의 성적을 유지해야만 잔류할 수 있는 MCT S리그 내에서 동호회 간 선수들의 이적과 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한 10명 정도 넘게 들어온 게 다른 팀 과 합병을 해서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됐어요. 다른 팀에 활동하는 인원이 6명 정도 있고 저희 팀에서 기존 활동하던 팀원이 4명이 있고 타 지역 팀에서도 3명 정도가 합류했어요.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됐죠. 처음 고민이 선수층이 S리그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얇다. 그래서 서로 팀들 간의 합병 이야기가 나왔고 합치게 됐죠(연구참여자 #3).

서울 팀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원래 경상권에 있는 팀에 창단 멤버였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았었는데 중간에 한 번씩 팀을 옮겨 다녔어요. 이 팀에 머물러 있으니까 팀의 운동 방식이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 쪽 팀이 인프라나 정보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 되어 가고 더 전략화 돼 가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고 싶어서 서울 팀으로 가는 거죠 (연구참여자 #6).

한 달에 2회 이상 팀 훈련을 올 수 있는 사람 몇 번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서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 조항이 있으면 제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고 제가 혼자 들어가면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T.O 두 개를 더 줬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준 거죠. 두 개를 줘서 D리그 선수 2명과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에서 특례를 준거죠(연구참여자 #6).

동호회 간의 합병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기존 동호회 내에서 이탈자들도 발생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자기 동호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합병에 있어서 반대하는 인원들이 있었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S리그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합병을 단행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합병에 동의했지만, 일부 이탈자들도 발생 하였다. 전용배, 김영갑(2009)은 스포츠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승리지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문화주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접근은 선진화된 스포츠 문화의 형성과 추구를 의미한다. 스포츠 동호회 활동은 서로 경쟁하면서 참여 동기를 높이고 삶의 진지한 여가로 풍요로움을 가져와야 하는데, 승리지향주의, 인간의 도구화, 지나친 경쟁주의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엘리트 체육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임새미, 2016).

합병의 과정에서 속도에 따른 서열문화가 나타났다. 이는 MCT S리그라는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의 특성을 보여준다. 민경호, 김성수(2004)는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내부의 지위, 역할, 규범들 사이에서 이익의 분배, 권한의 강화, 혹은 정서적 불일치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인식의 편차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이성이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인원 가지고는 앞으로 MCT S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도 들어와야 되고 인원 수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팀으로서는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몇몇 팀하고 설외 같이 합병하게 됐어요. ... 중략 ... 그래서 재정비를 하면서 지역의 명문 팀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하에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합병 과정에서 몇 명은 시합 나가고 하는 게 부담되고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팀에서 빠지더라고요(연구참여자 #4).

기존에 저희 팀이 있었고 지역의 다른 팀이 있었는데 합병을 했어요. 그쪽 인원이 수가 많다 보니 저희가 흡수가 된 거죠. 흔히 말하는 전투력이 강화돼서 지금 두 팀 다 S리그에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합병하기까지는 암암리에 반대하는 팀원들도 있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력으로는 저희 팀이 나은 데 저희 팀은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고 저쪽 팀은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 근데 또 팀 내에서는 또 반대를 많이 했지 왜 굳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 중략 ... 팀의 경쟁력

을 위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까 수궁 했고 그 과정에서 이탈자는 한두 명 있긴 했어요(연구참여자 #1).

2) 승리를 향한 역할갈등

동호회의 동료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팀 플레이를 통해 승리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정이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MCT S리그 시합 경험이 많고 여러 MCT동호회로 이적을 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6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회원이 내부의 적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 시상을 하는 자전거 종목의 특성상 동호회의 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동호회를 이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욕심이 있는 거죠. 팀원이 시합 중에 도망을 나가 있으면 나는 빨리 가면 안 되지만, 2등 3등에 욕심이 나서 나도 도망가고 싶은 거죠 ... 중략 ... 내부의 적이죠. 여기서 우리 팀원이 나갔을 때는 뒤에서 그룹의 속도를 줄여 주는 게 좋은데 개인적인 등수 욕심이 있다 보니 참지를 못하는 거죠(연구참여자 #6).

동호회의 에이스 선수인 연구참여자 #4는 동호회 내에서 자신보다 더 강한 선수가 나타나서 서로를 자극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훈련 시에 압박을 많이 하지만,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따라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회원들 간에 같은 목표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훈련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분위기가 동호회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저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탐이죠. 제발 좀 나를 누가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르막 갈 때 좀 잡아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 자량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훈련할 때 내가 치고 하면 옆으로 나와서 나를 좀 자극을 좀 시켜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친구도 발전되고 나도 같이 발전될 수 있고 그래야 그 팀이 경쟁력 있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하며 팀원들을 푸시 하고 있어요.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말없이 열정적으로 잘 따라줘서 고맙기도 하죠(연구참여자 #4).

한편, 동호회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3은 MCT S리그에서 동호회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냉정하고 강압적으로 선수에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현재 동호회의 방향성은 친목을 중시하는 편이어서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호회와 회원 개인 간의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갈등 당연히 있죠. 만약에 제가 어느 한 팀을 책임지는 코치였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너 같은 경우는 좀 쉬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팀 성적을 위한 팀이 아니었고 친목을 위한 팀이었으니까 그런 갈등은 많았어요. 선수들한테 그냥 너는 쉬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갈등을 많이 했어요. 뛰고 싶은 선수들한테 그냥 너는 경기 나가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경기를 뛰면서 경험을 해보라는 행복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죠. 만약에 저희가 팀 성적만 봤으면 넌 나가지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연구참여자 #3).

MCT S리그라는 무대에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동호회의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영광보다 동호회의 영광을 더 높은 가치로 바라보는 경향이 보인다. MCT S리그 내에서 최상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의 실력이 동호회 내에서 리더를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동호회의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동료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개인의 승리보다 함께의 가치를 더욱 높은 의미로 두고 있다고 하였다. 동호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연구참여자 #7도 동료 위해 기꺼이 희생해줄 생각이 있고, 동료가 입장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고 동호회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Greenleaf(1970)은 서번트리더십을 리더가 동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충족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 스타일로 정의하며, 이는 동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기부여하기 위해 리더가 동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ameron & Spreitzer(2012)는 서번트리더십을 조직구성원들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리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저의 팀 내 실력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이지만 올해는 두 번째를 선택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인 젊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포트를 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대회에서 큰 오르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포런더 성향이 강한 친구를 지원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도움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승을 했을 때도 기분이 좋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라는 가치를 높게 사기 때문에 제가 우승했을 때보다 남이 우승해서 좋았을 때가 그냥 좀 더 기분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불만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저를 언급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죠. 누구 때문에 이번에 우승했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6).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팀원을 위해 희생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있죠. 충분히 저희 팀에서 누군가가 입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의 자랑거리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다 이해 해주고 잘하면 팀의 영광이죠. 팀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영광이 자기 혼자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거기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영광이

고 팀의 영광이라고는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7).

3)갈등해소와 자아실현의 장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개인의 목표와 이상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자전거를 즐기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 #4, #6은 S리그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생업 외에 일과 의 모든 중심이 자전거 훈련에 맞춰져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이런 생활이 가끔씩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자전거 라이딩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의 종목 특성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스포츠를 소비하는 것이 단순히 스포츠 자체의 유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위세, 권위와 같은 이미지와 관련된 상징적 요소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장호중, 김지은, 김정목, 정철규, 박순문, 2003).

다수의 MCT S리그 동호인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힘들지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자전거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자전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언급하였다. 자전거에 맞춰진 삶을 살면서 원하는 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Maslow(1943)는 임상적 관찰을 토대로 욕구 5단계설(hierarchyofneedstheory)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특정 기본 욕구의 만족이 이루어지면 더 높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는 주장을 하였다. 네 단계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충족되면, 마지막으로 개인은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욕구단계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창의성, 문제 해결, 내재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포함한 자아의 완성과 삶의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 네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개인과 사회는 다음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욕구 단계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창의성, 문제 해결, 내재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포함한 자아의 완성과 삶의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Coakley(2011)은 동호회를 통한 스포츠 활동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와 관련된 신체활동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발적인 정기모임을 형성하여 함께 운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이고 사회적인 욕구까지 포괄적으로 충족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좀 부지런 해야죠. 근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운동을 한다든가 일과가 끝나고 사적인 자리를 안 해야 되겠죠. 정해진 모임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노는 일은 없고 계획을 짜놓고 운동 강도를 정해놓고 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현타가 올 때가 있지만 그게 자존심이기도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자전거에 꽂혀 있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은 이상 요즘 동호인들도 잘 타기 때문에 그걸 지켜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할 줄 알고 잘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또 어디 가면 또 자전거 타야만 그 안에서 먹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미있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1).

시합에 나가서 원하는 성적을 내고 싶으면 매일 타야죠. 체계적인 훈련을 잡아 놓고 스케줄대로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 중인데 잘 안 돼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매일 매일 타야 된다고 봐야죠. 자전거가 삶의 80% 이상이 아니겠나 싶어요. ... 중략 ... 활력소라고 봐요 사람들하고 자전거로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앞으로 부상 없이 좋은 인연을 계속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항상 자전거를 타면서 내 건강을 또 챙길 수가 있으니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4).

상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투자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더 투자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투자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네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돼야 운동에 대한 양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요. 돈 같은 경우도 중형차 한 대 값이죠. 힘들지만 유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운동하는 김에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 걸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힘들지 않다 라면 거짓말이고 정말 힘든 거는 아무래도 관리죠 휴식을 잘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나머지 힘들고 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6).

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장애를 노력으로 이겨내고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족들 앞에서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전거를 더 열심히 타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전거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자전거를 즐기는 동기를 얻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McIntyre(1992)는 모험스포츠의 참가자는 모험스포츠를 자신표현과 정체성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모험스포츠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험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활동에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최적의 자아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을 언급 하였다(민진, 1986). 이것은 Maslow가 제창한 욕구 5단계 중 최상위의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못 쓰게 됐을 때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어요. 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싶어서 타다 보니까 입장을 하고 남들보다 잘 탔을 때 그 성취감에 자존감도 높아져서 더 열심히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어릴 때 애들이 제가 한 손을 못 쓰고 행동이나 물건을 잡을 때 라든지 하면 애들도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빠는 보통 사람들보다 장애가 있어도 자전거를 더 잘 탄다.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V. 논의

본 연구는 MCT S리그 동호회로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의 S리그 동호회만의 특수한 문화 즉, 하위문화에 대해 문화 기술적 연구로서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동호인 MCT S리그 선수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선행연구 논문의 고찰과 비교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는 MCT S리그에서 활동 하고 있는 연구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동호인 7명을 선정하였다. 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동호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호회 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자료는 심층면담, 참여관찰, 문헌 고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통해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의미의 범주화와 개념화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자전거 MCT S리그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CT S리그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동호회의 속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동호회의 속도에 따른 구별 짓기, 폐쇄성, 차별적 멤버 선발 등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라 그룹이 구분되어 주행을 하고 있다. Bourdieu(1983)는 자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경제자본으로는 화폐로 전환 가능한 자산들이 있으며, 문화자본은 학위와 자격증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리키며, 상징자본은 명예나 평판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현택수, 정선기, 이상호, 홍성민, 2002; Bourdieu, 1983).

즉, 경제력, 인맥, 교육, 도덕성과 같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향해 행사할 수 있는 근원 모두가 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은 각 개인마다 불평등하게 소유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 내 동질적인 특성이나 집단 간 배타적인 이질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Bourdieu가 강조하는 “구별짓기“이다. 그룹의 구분으로 인해 동호회 내의 회원들 간에 단절이 발생하고, 속도 차이와 주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는 회원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각 그룹의 실력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민경호, 김성수(2004)는 구성원들은 조직 내부의 지위, 역할, 규범들 속에서 이익의 분배, 권한의 강화, 혹은 정서적 불일치 등의 차원에서 인식의 편차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이성이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동호회 내에서도 MCT S리그 그룹과 일반 그룹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발생한다. Bourdieu의 관점에서 MCT S리그 선수들은 S리그라는 문화자본을 통해 자신들만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이 소유한 자본을 유리한 방식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MCT S리그 동호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시합 위주의 검증된 실력과 우수한 인성을 갖춘 선별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다. 한승백(2002)은 조직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로, 조직 내부구조, 관리 등의 요인에 의해 외부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태룡(2003)은 동호회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와 구별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거나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등의 배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MCT S리그 동호회에 소속되기 위한 기준은 실력을 기반으로 구분되며, 이로 인해 구별짓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권기남(2009)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계급 또는 사회적 계층을 규정하는 지표로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상류 계층이 특정 스포츠에 참여함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들의 계층적인 위치를 상징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특정 스포츠는 MCT S리그 동호회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사회적 계층은 개인의 실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증된 MCT S리그 동호회 외에 외부 동호회와의 주행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회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동호회 내부에서 폐쇄성이 형성되고,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동호회와의 주행을 회피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강효민, 박기동(2008)은 동호회 활동 내에 사회적 배타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에서 계층적 의식과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MCT S리그에 잔류를 위해서 동호회는 성적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동호회 내에서 S리그 참가 멤버의 선발은 실력의 차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호회 내에서 멤버에 선발되기 위해서 선수들 간의 선의에 경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강성진, 이혁기 및 임수원(2010)은 테니스 동호회의 랭킹 시스템이 테니스 동호회 멤버들의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동호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과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현, 권순용, 2010).

둘째, MCT S리그 동호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남성 중심의 속도문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중심 문화, 속도에 따른 서열문화, 안전중심의 엄격한 훈련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은 과거에는 종교적 윤리와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스포츠 경기 참가는 물론 관람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임변장, 1995).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보편화 되었고, 여성들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여성들의 자전거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스포츠 동호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종목의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여성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전거 MCT S리그 동호회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성 회원들은 MCT S리그에서의 속도에 부담을 느끼며 경쟁에 살아남지 못하고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전거 MCT 동호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동호회의 특징으로 인해 빠른 속도의 경기와 동호회 주행, 위험하고 격렬한 MCT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담감은 여성 회원들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남성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구창모(2008)에 따르면 생활체육 동호회에서는 실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실력이 뛰어난 회원들이 나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동호회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른 서열이 형성되는 문화가 발생한다. 강민정(2006)은 문화는 결국 집단 내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는 생활양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상위의 실력에 있는 사람은 동호회에서의 운영에 있어 결정권과 발언권에 힘이 실린다. 이에 안병순(2003)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이 높게 평가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전문가의 경험, 지식 또는 능력으로부터 전문적인 권력이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가 서열과 자존심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속도에 따라 형성된 서열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Scanlan, Varpenter, Simonsm(1993)은 내기가 재미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도록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동호회 내에서의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자전거 MCT 동호회뿐만 아닌 다른 스포츠 동호회 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으로 신석민, 최원석(2017)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승급제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는 안전중심의 훈련 문화가 형성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폐쇄적인 동호회 운영과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 되고 그에 따른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동호회 내 자전거 주행에 있어서 늘 안전에 대하여 강조하며, 엄격한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동호회 훈련은 도로에서 높은 속도로 밀집된 주행으로 진행이 된다. 이로 인해 누군가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주행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정광진(2013)은 도전과 모험을 요구하는 스포츠일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안전이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되어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MCT 리그 내에서도 D리그와 S리그 간에는 기량 차이가 존재하며, D리그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MCT S리그에서 검증된 동호회끼리 주행하는 폐쇄적인 동호회 주행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권기남, 이주혁, 이정래(2015)는 여가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자신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 지면서 다양한 여가스포츠 활동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동호회 선수들의 자전거 가격 또한 전반적으로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 MCT 대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자전거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MCT S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며, 최고가의 자전거보다 경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선택한다. 그러나 리그의 하위권 선수들은 좋은 장비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으며, 장비에 대한 욕심과 과시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상위권과 하위권 참가자들 간에 자전거의 의미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MCT S리그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으로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위광을 위한 암묵적 합의, 승리를 향한 역할 갈등, 갈등해소와 자아실현의 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MCT S리그에서의 경쟁력과 우승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목적이 동일한 동호회들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승현, 서미아(2010)는 경쟁에서의 우승을 주요 목표로 삼는 운동 동호회 회원들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모든 활동을 그 목표에 집중하며, 회원들의 몰입과 열정이 더욱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한태룡, 박보현, 한승백, 탁민혁(2013)은 스포츠의 특성 중 경쟁성이란 집단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개인 및 집단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동호회 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서 선수의 영입에 있어서도 집단 간 경쟁과 특례를 통한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갈등 상황으로 인해 기존 회원의 이탈이 발생하기도 한다.

MCT S리그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경기에 참가 하게 되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팀플레이를 통해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 무너지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동호회와 회원 개인 간에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회원들 간에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훈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는 MCT S리그 내에서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윤선아(2010)는 유대감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며,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임강영, 한광령(2010)은 팀원들과 함께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동호회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조직이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창범, 2006). 임수원(2000)은 동호인 스포츠가 참가자들에게 공유의식을 심어주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동호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며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동호회와 회원 영광을 개인의 영광 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번트리더십을 처음 언급한 Greenleaf(1970)는 타인에 대한 봉사과 헌신을 강조하며, 종업원, 고객 및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쓰는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김용주, 2013 재인용). Greenleaf(1970)에 따르면 서번트리더십은 조직원들 간에 공감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동적으로 이끌어어나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동호회를 통한 스포츠 활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구와 관련된 신체 활동이다. 이를 통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운동하면서 인간의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욕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Coakley(2011)의 주장이다.

MCT S리그의 선수들은 개인적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을 얻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성, 이창섭, 남상우(2009)의 연구에서는 동호인들에게 자신의 실력이 인정되어 자부심을 느끼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수영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평가받는 실력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Maslow의 욕구 이론에서 존경의 욕구에 해당하는 4단계로 나타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전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MCT S리그 동호회 활동을 통해 Maslow의 욕구 이론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에 도달하기도 한다. Maslow(Abraham H. Maslow,1954)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인간이 자기 완성에 대한 욕망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자아실현의 단계를 의미하며,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 자아실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상호(2002)는 스포츠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승리를 위해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경쟁과 상대와의 대립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스포츠는 인간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자전거 MCT S리그 동호회의 참여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동호회 내부 현상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동호회 활동과 MCT S리그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는 MCT S리그에 참여하고 연구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는 7명의 동호인을 선정하였다. 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이 동호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동호회 내부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 관찰, 보조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통해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의미의 범주화와 개념화 분석 과정을 통해 자전거 MCT S리그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CT S리그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속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었다.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라 그룹이 구분되어 주행하는 “구별짓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호회 내의 회원들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고, 속도 차이로 인해 주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는 회원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각 그룹의 실력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동호회 내에서도 MCT S리그 그룹과 일반 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고 있었다. 동호회 내에서 MCT S리그 그룹은 별도의 소통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행 공지도 해당 단톡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Bourdieu의 관점에서 MCT S리그 선수들은 S리그라는 문화 자본을 통해 자신들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소유한 자본을 유리한 방식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MCT S리그 동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합 중심의 검증된 실력과 우수한 인성을 갖춘 선별된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다. MCT S리그 동호회에 소속되기 위한 기준은 주로 실력을 기반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구별짓기 현상이 발생한다. 외부 동호회와의 주행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회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호회 내부는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며,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동호회와의 주행을 피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MCT S리그에 속한 동호회는 리그에서 잔류하기 위해 분기별 성적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동호회 내에서 S리그 참가 멤버의 선발은 실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경쟁과 선의에 의한 선택이 진행된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동호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MCT S리그 동호회는 문화적으로 남성 중심의 속도 문화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들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들의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전거 동호회에서 여성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전거 MCT S리그 동호회에서는 특징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성 회원들은 MCT S리그의 속도에 부담을 느끼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자전거 MCT 동호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회에서의 우승이 목표인 동호회의 특징으로 인해 빠른 속도의 경기, 동호회 주행, 위험하고 격렬한 MCT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담은 여성 회원들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남성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소수의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파벌과 갈등이 발생하는 다수의 사례로 인해 남성만 가입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회가 형성되고 있다.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른 서열이 형성되고 있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회원들이 경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동호회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실력을 가진 사람은 속도, 경험, 지식 등을 통해 전문적인 권력을 얻어 동호회의 운영에 결정권과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결과, 참여자들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가 서열과 자존심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이는 속도에 따라 형성된 서열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동호회 내에서의 갈등 상황과 개인의 운동 중독 성향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는 안전을 중시하는 훈련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인 동호회 운영과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었다. 동호회 내 자전거 주행은 항상 안전을 강조하고 서로 간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진행된다. 도로에서 고속으로 밀집된 주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전체 그룹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안전이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되어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MCT 리그 내에서는 D리그와 S리그 간에 기량 차이가 존재하며, D리그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MCT S리그에서는 검증된 동일한 S리그 동호회끼리만 주행하는 폐쇄적인 동호회 주행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동호회 선수들의 자전거 가격은 전반적으로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 MCT 대회에서 사고로 인해 자전거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MCT S리그에 참가하는 상위권의 선수들은 최고가의 자전거보다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그의 하위권 선수들은 좋은 장비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으며, 장비로 인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상위권과 하위권 참가자들 간에 자전거의 의미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MCT S리그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으로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갈등이 분석되었다. MCT S리그에서는 경쟁력과 우승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들이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호회의 경쟁력을 위해 회원들의 활동이 더욱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몰입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성적 향상을 목표로 다른 동호회보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집단 간 경쟁과 특례적인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이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MCT S리그에서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경기에 참가하지만, 팀플레이를 통해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동호회와 회원 간에 추구하는 방향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회원들 간에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훈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는 MCT S리그 내에서 경쟁력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대감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MCT S리그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경기를 진행해야함으로 대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것은 리그에서의 큰 경쟁력을 가져온다. 동호회 활동은 참가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동호회와 회원의 영광을 개인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회원들 간에 높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동호회와 회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협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욕심보다 조직의 승리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호회 활동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자아실현의 욕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MCT S리그의 선수들은 개인적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을 얻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의 실력이 동호회 내에서 인정받아 자부심을 느끼고, 타인들로부터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Maslow의 욕구 이론에서 존경의 욕구에 해당하는 4단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전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자전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MCT S리그 동호회 활동을 통해 Maslow의 욕구 이론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현재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자아실현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승리를 위해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상대와의 유대를 통해 인간적인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를 통해 자전거 MCT S리그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 동호회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위치한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하위문화, 동호회 내부의 MCT 동호인과 일반 동호인 간의 하위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자전거동호회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비교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남성 동호인 위주로 하위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여성 동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자전거 여성 동호인의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자전거동호회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전거 MCT S리그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MCT D리그 동호인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두 리그 동호인 간 하위문화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전거동호회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구창모(2008). 테니스동호인의 하위문화적 특성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6), 113-125.
- 강명구(1995).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 강민정(2006). **문화 상호적 접근법에 의한 일본의 문화이해교육에 대한 고찰: 한·일의 正月문화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강성진, 이혁기, 임수원(2010). 테니스동호인 랭킹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체육학회지** 49(2), 71-81.
- 강효민, 박기동(2008).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4), 845-863.
- 권기남(2009). **상류계급 골프문화의 구별짓기와 계급재생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권기남, 권순용(2013). 축구심판들의 구별짓기와 전복전략.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2), 65-84.
- 권기남, 이정래, 최정웅(2014). 엘리트스포츠 여성지도자의 아비투스과 전복전략.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3), 115-132.
- 권기남, 이주혁, 이정래(2015). 캠핑활동의 사회문화적 의미 읽기. **한국체육학회지**, 54(4), 123-137.
- 권김현영, 나영정, 루인, 엄기호, 정희진, 한채운(2001). **남성성과 젠더**. 서울: 자음과모음.
- 권현수(2015). **스포츠클럽 구성원으로서 융화되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숙영, 원영신(2000). 청소년 댄스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2), 105-116.
- 김영갑(1996). **대중매체 수용태도와 스포츠 참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용주(2013). **보육교사가 인식한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성, 이창섭, 남상우(2009). 심리적 포부와 사회적 책임: 마스터즈 수영 참가자의 지속요인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8(1), 93-101.
- 김정은(2003). **대중문화 읽기와 비평적 글쓰기**. 서울: 민미디어
- 김찬룡(2004). **George H.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골프동호인 하위문화 특성**.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대한자전거연맹(2023). **동호인 규정**, 대한자전거연맹.
- 민경호, 김성수(2004). 집단갈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대한경영**

학회지, 제43호, 575-598

- 민진(1986).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자기성취**.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민경현, 유성진, 최영래(2018). 팔씨름 참여자들의 하위문화적 특성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397-408
- 박상용, 오현택, 김영구(2011) 사회인 야구동호인의 하위 문화적 특성: 야구용품 구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0(1), 205-218
- 박상현, 권순용(2010).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9(4), 57-78.
- 박영옥(2002). 성 편향적 스포츠와 여성주의적 대안. **사상 여름호**, 53, 77-97
- 박창범(2006). 여성 인라인스케이팅 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4), 189-202.
- 박창범, 임수원(2005).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 사회인결망에서의 자원교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3), 429-443.
- 배정섭, 서광봉, 이민석(2018). 사회인야구동호인들의 팀 이탈 및 재참여 요인에 대한 귀납적 범주분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2(4), 1-11.
- 신석민, 최원석(2017). 배드민턴 동호인 승급제도의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학회지**, 15(2), 589-598.
- 석승혜(1999). **저항적 하위문화에 대한 일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재하(2007). 여성 테니스 동호인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1(6), 85-98.
- 이강우, 김석기(2001). 청소년 하위문화로서의 스포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2(4), 321-333.
- 임강영, 한광령(2010).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의미형성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4), 107-128
- 임번장(1995). **스포츠 사회학 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임송국(2016). **여성 생활체육 농구동호회 참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체형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새미(2016). 생활체육동호회의 진입장벽 청년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397-406.
- 임수원(1999a). 길거리 농구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1), 41-56.
- 임수원(1999b). 스포츠의 하위문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세미나(1) 자료집**, 53-71.
- 임수원(2000). 골프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2), 207-229.
- 안병순(2003). **군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경

- 영정책과학대학원
- 이철원, & 조상은. (2001). 청소년의 여가만족과 제약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1, 179-194.
- 이혁기(2005). **기혼여성 축구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과 기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윤선아(2010). **통합 상황에서의 소집단 공감활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 표현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호중, 김지은, 김정목, 정철규, 박순문(2003). 스포츠 소비자의 가치관과 스포츠 선호종목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459-474.
- 정광진(2013). **패러글라이딩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장비 점검활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전용배, 김영갑(2009). 녹색성장과 스포츠.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1-13
- 조형(1992). **지배문화, 남성문화**. 서울: 청하.
- 장승현, 서미아(2010). 크루저요트 동호인 하위문화의 수직적/수평적 구성원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2), 117-134.
- 최상호(2002).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통연구원(2012). **자전거안전정책의 계량적 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2021). **친환경 개인교통 정책지원사업**. 한국교통연구원
- 행정안전부(2010).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행정안전부
- 한승백(2002). **스포츠도박 참여와 중독성향 및 생활적응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현택수, 정선기, 이상호, 홍성민(2002). **문화와 권력 :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 한태룡(2003). **테니스 동호인의 하위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태룡, 박보현, 한승백, 탁민혁(2013). **스포츠 사회학**. 서울: 레인보우박스
- Adler, P., & Adler, P. (1991). *Blackboards and blackboards: College and Role Engulf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mason, A. C., & Sapienza, H. J.(1997). The effects of top management team size and interaction norms on cognitive and affective conflict. *Journal of Management*, 23, 495-516.
- Bourdieu, P.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translated by R Nice. London and Beverly Hills: Sage
- Bourdieu, P. (198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The Economic World Reverse Poetics, 12

- Birrell, S., & Ritcher, D. (1987). 'Is a diamond forever?: feminist transformation sport'.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0, 395-409.
- Cameron, K. S., & Spreitzer, G. M. (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 Coakley, J.(2011). *Sport in Society: Issues & Controversies* (No. Ed. 10). New York: McGraw-Hill Inc.
- Crosset, T. (1995). *Outsiders in the Clubhouse: the World of Women's Professional Golf*.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roeset, T., & Beal, B. (1997). The use of "subculture" and "subworld" in ethnographic works on sport: A discussion of definitional distinctions. *Sociology of Sport Journal*, 14. 73-85
- David, J., & Julia (1991). *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Harper Collins publishers.
- Donnelly, P. (1980). *Toward a definition of sports sub-culture*. In M. Hart & S. Birrel (Eds.), *Sports. in the sociocultural Press*, 3rd ed. (pp.565-587). Dubuque, IA: Wm. C. Brown.
- Donnelly, P. (1993). *Subcultures in sport: Resilience and transformation. Sport in Social Developmen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ublishers.
- Foley, D. (1990). The great American football ritual: reproducing race, class, and gender inequality. *Sociology of Sports Journal*, 7, 111-135.
- Greenleaf, R. K. (1970). *TheServantas Leader. Indianapolis: The RobertK. Greenleaf Center*.
- Guba,E.G.,& Lincoln, Y. S. (1989). *Fourthgenerationevaluation*. Newbury Park,CA :Sage.
- Klein, A. (1991). *Sugarball: the American game, the Dominican drea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oy, J. W., Mcpherson, B. D., & Kenyon, G. (1978). *Sport and social System*.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Luschen, G. (1969). The Interdependence of Sports and Culture. *International Review on the Sports Sociology*, 2, 27-41.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methodinsocialworkrecher*, Parse, R., Coyne, A., Smith, M. (1995). *Nursingresearch: Qualitativemethod*. Bowie, MD: Braldy Communication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CA:Sage
- Pearson, K. (1979). *The Surfing Subcultur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St. Lucia: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 Scanlan, T. K., Varpenter, P. J., Lobelm, M., & Simonsm, J. P. (1993). Sources of Enjoyment for Youth Sport Athletes. *Pediatric Exercise Science*, 5, 275-285.

- Steele, P. D., & Zurcher, L. (1973). Leisure sports as ephemeral roles.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6*, 345-356.
- Theberge, N. (1995). *'Injury, pain and playing rough in women's ice hockey*. Paper present at the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s, Ottawa.
- Vaz, E. (1972). The culture of young hockey players: some initial observation, In A. W. Taylor (ed.), *Training: Scientific Basis and Application* (pp. 222-234).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Wacquant, L. (1989). Corps et âme: notes ethnographiques d'un apprenti-boxeur,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80*, 33-67.
- Wacquant, L. (1992). The social logic of boxing in black Chicago: toward a sociology of pugilism. *Sociology of Sport Journal, 9*, 221-254.
- Wacquant, L. (1995a). Pugs at work: body capital and bodily labour among professional boxers. *Body and Society, 1*, 65-93.
- Wacquant, L. (1995b). Protection, discipline et honneur: une salle de boxe dans le ghetto américain, *Sociologie et Sociétés, 27*, 75-90.
- Wolcott, H.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 Wolfgang, M., & Ferracuti, F. (1967). *The subculture of violence*. London: Tavistock.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96.
- Maslow, A. H. (1954). The instinctoid nature of basic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 McIntyre, N. (1992). Involvement in risk recreation: A comparis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engag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64-71.
- Nixon, H. I. (1992).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Influences on Athletes to Play with Pain and Injuries.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16*, 127-135.

ABSTRACT

A Subcultural Analysis of a Bicycle Masters' Cycle Tour S-League Participating Club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University of Ulsan
Sports Management
Jin Uk Kw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ation of a subculture unique to members of the bicycle MCT S League through their club activitie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ubculture, the internal phenomena within the club were set as research problems, and a cultural-techn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club activities and their perceptions and meanings of the MCT S League.

A total of seven club members who met the research criteria and agreed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from the MCT S League. Through the cultural-technological approach, the background and internal dynamics of the club were examined. Data collection involved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supplementary research materials. The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into textual form through transcription work, and through the process of categorizing and conceptualizing the analysis of mea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sub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icycle MCT S League club was derived as follows.

Firstl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MCT S League club revealed an invisible barrier based on the team's speed. Specifically, it manifested as differentiation based on the club's speed, exclusivity, and discriminatory member selection. Even within the same bicycle club, the phenomenon of groups being divided and riding separately based on speed differentiation was observed. This can lead to a sense of alienation among members and potential conflicts between groups, resulting in an invisible barrier between the MCT S League group and other general groups within the club.

To join the club, individuals must possess validated skills and exemplary character traits. Additionally, measures are in place to ensure safe riding, limiting interactions with external clubs. As a result, the club exhibits closed characteristics internally.

The selection of members for the S League is based on differences in skills within the club, and during this process, healthy competition among players takes place. The selected participants through this competitive process gain a sense of pride and accomplishment as team members, leading them to continue their activities.

Secondly, the cultural characteristic of the MCT S League club revealed a male-dominated speed culture. Specifically, it exhibited a male-centered culture, a hierarchical culture based on speed, and a strict training culture focused on safety. The MCT S League club operates with a distinctive male-centric approach. Female members often feel burdened by the speed requirements of the league and face challenges in competing, leading to cases of withdrawal. This burden not only affects female members but also older male members, who may give up their activities due to the demands.

Within the MCT S League club, a culture of hierarchy based on speed also emerges. Individuals with superior skills hold decision-making power and influence within the club's operations. Participants mentioned that they engage in cycling diligently because of the sense of hierarchy and self-esteem it brings. Whil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effect of the hierarchical culture formed based on speed, it also leads to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conflicts within the club and individuals developing exercise addiction tendencies.

The MCT S League club emphasizes a training culture focused on safety, resulting in a closed club operation and strict training culture. Participants exhibit strict and sensitive reactions to safety matters, which can lead to conflict situations. However, safety is recognized as the top priority,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rigorous training culture within the club.

Thirdly, the MCT S League club exhibits social interaction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expans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conflicts. Specifically, it manifests as implicit agreements for fame, role conflicts toward victory, and conflict resolution and self-realization opportunities. In the MCT S League, clubs with the same goal of competitiveness and achieving victory are undergoing mergers. Moreover, there is intergroup competition and exceptional transfers to recruit superior players for better performance. However, conflict situations arising from these processes can lead to the departure of existing members. Instances

where the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s undermines teamwork and the process of achieving victory occur frequently. Conflicts also arise due to differences in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club and individual members.

Members of the MCT S League club demonstrate characteristics of servant leadership, where they value the glory of the team and teammates more than personal glory through individual sacrifices. They prioritize the team's victory over personal desires, fulfilling not only the higher-level self-realization needs but also the basic social needs comprehensively through club activities. Furthermore, club activities allow individuals to reach the self-actualization stage, which is the highest level in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Within the framework of established rules, individuals undergo a process of personal growth through competition and solidarity with opponents, striving for legitimate and fair victory.

Key words : bicycle club, sub-cultural, sport subculture,
MCT s-league, masters cycling tour

